

사랑의열매

2020 09

포스트 코로나 × 사랑의열매

“더 안전한 내일을 위해
함께 고민합니다”



사랑의열매 홈페이지 chest.or.kr



사랑의열매 공식 SNS

📷 인스타그램 @fruits_of_love 📘 페이스북 @chestkorea

📝 블로그 blog.naver.com/nanum_in

📺 유튜브 오지랴(oz.lab)_ 유튜브에서 '오지랴'를 검색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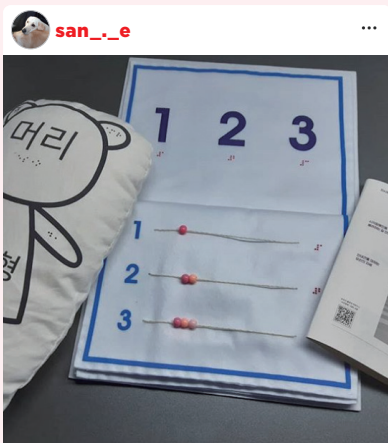
PLUS EVENT

**책 뒤표지에 사랑의열매가 숨어 있습니다.
어디에 사랑의열매가 숨어 있을까요?**

참여방법 숨은 그림을 찾아 인증샷을 본인의 SNS에 올려주세요.
해시태그를 달고 사랑의열매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를 팔로우하시면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필수 해시태그 #사랑의열매 #모두의나눔 #숨은열매찾기

당첨자 선정 인증샷을 올려주신 분을 선정해 커피 기프트콘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에게는 개별 연락드립니다.



코로나9 시기에 참 좋은 봉사 활동.
사실 산이와 같이 있으면서
회사 갈 때도 집 밖을 나서기가
미안했는데
요건 집에서 가능해요.

종류는 두 가지
#공돌이점자촉각인형
#숫자놀이점자책
저는 손으로 만드는 걸 참 좋아해서
두 가지 다 신청.
바느질만 이용하면 완성이고요,
소요 시간은
두 가지 합해서 3시간 안 걸렸어요~

택배로 받고 택배로 보내는 거라 사람과
안 마주쳐도 되네요.
같이 동봉된 책자에 안내문에 대한
안내도 나와 있어서 너무 반갑고요.
#집에서할수있는봉사 #집에서하는봉사
#혼자할수있는봉사 #혼자하는봉사
#코로나봉사 #시각장애인을위한봉사
#자원봉사 #봉사활동



케이스 디자인 완전 취져♡♡
거기에 좋은 곳에 기부도 되는 케이스
폰이랑 찰떡! 너무 이쁘다.♡♡

#소비에가치를더하다 #독도협회기부
#사랑의열매 #맨즈케이스
#갤럭시s20플러스 #BTS에디션 #일상
#취향저격 #핸드폰케이스 #고급지주



공모전 참가했어요! 상 받음 좋겠다.
마지막 대사 잘렸다.
"전액 기부해주세요"입니다.
#만화 #공모전참여 #공모전 #나눔
#나눔공모전 #사랑의열매 #그림쟁이
#그림 #그림스타그램 #그림계정맞팔환영
#illust #illustration #comic #picture
#drawing

#나눔태그

#나눔스타그램 캠페인

세상을 따뜻한 온기로 가득하게 만들어요!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모습,
일상의 따뜻한 사랑과 온정을 느낄 수 있는 모습을 담아주세요.

참여방법 일상의 따뜻한 모습.

나눔과 봉사 현장, 또는 일상에서 만난 사랑의열매를 SNS에 올려주시고 해시태그를
달아주세요.

필수 해시태그 #나눔스타그램 #사랑의열매

기타 해시태그 #봉사 #기부 #나눔

당첨자 선정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해시태그와 함께 사진을 올려주시는 분을 선정해
커피 기프트콘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에게는 개별 연락드립니다.

CONTENTS



사랑의열매

vol. 161 2020. 09

발행인 예종석

발행일 2020년 9월 / 통권 161호

발행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 사랑의열매회관 6층

만든이 사랑의열매 마케팅본부

구독안내 전화 02-6262-3000

팩스 02-6262-3100

홈페이지 www.chest.or.kr

등록일 2003년 5월 13일

등록번호 서울중, 라00605

기획, 편집디자인

한국경제매거진(주) 02-360-4856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 시각 자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연간 기획

모두의 나눔_C-SDGs 연계 배분 사업 ⑧

신체·정서적 건강과 회복

04 몸도 마음도 튼튼한 건강한 삶 함께 가꾸어가요



10 커버스토리

사랑의열매와
카카오임팩트100up이 함께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 이후의 안전한
사회를 위한 문제 정의 워크숍

16 내 인생의 한마디

'배틀그라운드' 개발사 블루홀
공동 창업자 김강석 前 대표



- 20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다자녀·한부모 가정 아동을 위해 기부한
임영웅 팬클럽 '임히어로 서포터즈'
- 22 **나눔 현장**
한마음 한뜻으로 나선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
- 24 **세상을 바꾸는 희망 풍경**
미혼모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여성인권동감

- 28 **착한기업**
의술과 인술로 지역 공동체 지키는
경북대학교병원
- 32 **착한동네**
전북 익산
- 36 **문화로 보는 나눔**
내 방 1열에서 관람하는 온라인 공연
- 38 **함께편딩**
사랑의열매 클라우드편딩

- 39 **나눔 이슈**
제 2회 사랑의열매 학술상 공모
- 40 **전국 지회 뉴스**
- 50 **이달의 아너**
- 52 **독자 페이지**

몸도 마음도 튼튼한 건강한 삶 함께 가꾸어가요

연일 코로나19 재확산을 알리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어느 때보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졌지만,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볼 수 없는 환경에 처한
사람도 많다. 사랑의열매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튼튼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글 이선의 사진 각나눔기관 일러스트 조성음



2020년에는 매달 사랑의열매 지속가능발전목표인 C-SDGs의 16개 목표 중 하나를 선정해 주요 배분 사업과 함께 소개한다. 이번 달은 3번 신체·정서적 건강과 회복 관련한 사업을 다룬다.

3 신체·정서적 건강과 회복



- 1 매장 내 감정노동자 인식 개선 캠페인 홍보 물품을 비치한 모습
- 2 시민의 인식 개선과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캠페인
- 3 감정노동자 권리 보장 교육을 진행하는 모습



감정노동자 SOS 프로젝트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숨기고 친절하게 고객을 대하는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는 일반인의 6배에 달한다고 한다. 상당수는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정신적·육체적으로 심각한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 부천시노동복지회관에서는 사랑의열매와 삼성전자가 함께 하는 ‘나눔과꿈’ 사업에 선정돼 감정노동자 보호와 치유, 피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 중이다.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진단부터 개인 심리 상담과 집단 프로그램 등 개인별 맞춤 지원은 물론, 기업의 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감정노동 표준 사업 매뉴얼, 고객 응대 매뉴얼 등을 연구해 제안한다. 또한 감정노동자를 대하는 고객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하며, 건강한 노동자와 노동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3



1 군대 인권침해 피해 사건 발생 초기 대응부터 피해자의 트라우마 치유, 후유증 돌봄까지 원스톱 지원 체계를 완성할 예정이다. 2 예비 입영자를 대상으로 인권침해에 대해 예방과 부득이하게 침해가 발생한 경우 도움을 청할 곳을 알리는 '아미콜 홍보 캠페인'

군대 내 인권침해 피해자와 가족의 치유·회복 원스톱 지원

군 인권침해 피해자들은 대부분은 사건 종료 이후에도 오랜 시간 트라우마를 겪는다. 국가나 군대에서 실질적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피해 후유증이나 합병증은 오로지 개인 책임으로 떠안는다. 이에 군인권센터에서는 사랑의열매 '나눔과꿈' 사업의 일환으로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해 사건 발생 초기 대응부터 후유증 돌봄을 모두 포괄하는 원스톱 지원 사업을 3년 동안 수행한다. 또 피해자에게 법률 및 의료 지원을 해 효과적인 피해 구제와 조속한 사회 복귀를 돕고, 중증 트라우마로 발전하는 것을 막는다. 조기에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피해자는 스스로 심리적 아픔을 종결하고,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거리 청소년의 건강 지원을 위한 이동 진료 상담 사업

가출, 거리 생활 등 특수 환경에 머물러 있는 거리 청소년의 건강권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하지만 누구도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면서 거리 청소년은 제도권 밖에서 위태로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의정부시일시청 소년쉼터(이동형)에서는 지난해부터 삼성전자의 후원과 사랑의열매의 지원으로 거리 청소년의 건강 지원을 위한 이동 진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의료 활동이 가능한 버스에서 진료 상담과 응급처치를 하고, 그중 치과 등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동행해 의료비를 지

원한다. 또한 산후조리, 신생아 지원, 문신 제거 비용 등 내부 심의 과정을 거쳐 긴급 지원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 밖에도 거리 청소년의 생활공간을 방문해 정서 지원을 하는 방문 간호와 관련 법률 개정 및 정책을 제언하고, 실태를 조사하는 활동을 한다.



1 직접 거리로 나가 거리 청소년들의 건강 문제를 확인하고 있다.
2 거리 청소년의 건강 지원을 위한 건강 특화 버스를 전국 최초로 완성, 운영한다. 의료진이 버스 내부에서 응급처치, 건강 상담, 금연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를 위한 희망나눔상자

(사)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에서는 사랑의 열매의 '나눔과꿈' 사업 공모에 선정돼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에게 전달하는 희망나눔상자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희망나눔상자에는 히크만 카테터 주머니, 먼 마스크(아동용, 성인용 별도), 크림, 샴푸, 치약·칫솔 세트 등 환자에게 필요한 물품과 기증자가 자신의 조혈모세포를 이식받을 환자에게 작성한 '희망나눔메시지'도 함께 담겨 있다. 이식 환자는 희망나눔상자를 지원받음으로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을 따로 구입하지 않아도 돼 치료에 전념할 수 있다. 올해 총 300개의 희망나눔상자를 전달할 예정이며, 현재 160개(8월 13일 기준)를 지원했다.

“ 아이가 아픈 이후 사람들에게서 남다른 시선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희망나눔상자가 아픈 아들에게는 반드시 완치된다는 희망을, 제게는 따뜻한 위로와 가슴 가득 든든함을 선물해주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아이도 훗날 어른이 되면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잘 키울게요.

”
- 희망나눔상자를 받은 이식 환자의 보호자에게 온 메시지



1 이식 환자가 적은 희망나눔상자 인증샷
2 감염 예방에 필요한 물품과 기증자의 메시지가 들어 있는 희망나눔상자



코로나19 입원 환자 생활·위생 물품 지원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사랑의열매 지원으로 입원 치료 중인 코로나19 환자 5,800여 명에게 물품을 지원했다. 코로나19 환자가 입원 중인 병원에서 필요한 물품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협회에서 물품을 구매해 환자에게 전달한 것. 치약, 칫솔, 비누 등 입원·생활용품과 물티슈, 일회용 기저귀, 위생 패드 등 입원 소모품을 52개 의료 기관을 통해 지원했다.



노숙인 복지시설 방역 및

심리 정서 프로그램 지원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에서는 사랑의열매 지원으로 전국 노숙인 복지시설 28개소에 코로나19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방역 및 위생 관리를 위해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보건·위생용품 키트 구입과 시설 방역비를 지원하고, 시설 이용자·자가 격리자에게는 식료품과 생필품을 전달하고 있다. 또 내부에서만 생활하는 시설 이용자를 위해 심리 정서 프로그램도 지원했다. 인천 노숙인 복지시설 '은혜의집'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에 따라 장소를 구분해 각 층별로 부채 만들기, 딱지치기, 보물찾기 등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외부 출입에 제한을 받으면서 이용자 간 불만과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프로그램 덕분에 이를 해소하는 시간이 되었다. 🍀



- 1, 2 코로나19 입원 환자를 위한 물품을 지원받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위), 칠곡경북대학교병원(아래) 모습
3 인천 '은혜의집'에는 식탁 가림판, 손 소독기 등 방역 물품을 지원받아 설치했다.

사랑의열매와
카카오임팩트100up이 함께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 이후의 더 안전한 사회를
위한 문제 정의 워크숍

“무엇이 달라지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1



2

코로나19로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새로운
문제가 계속 야기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보다 더 안전한 사회를 위한
고민을 시작해야 할 때다.

글강은진 사진박충렬, 이준형



3

1 워크숍은 모든
데이터를 구조화하며,
문제를 정리했다.
2 시작하면서 인사말을
하는 김연순 사무총장
3 주제별로 7~8명이
한 조를 이뤄 문제를
집중 탐색했다.

이전과는 다른 문제와 직면

8월 13일 광화문 사랑의열매 대강당에서 사랑의열매와 카카오임팩트100up이 함께한 '더 안전한 사회를 위한 문제 정의 워크숍'이 열렸다. 코로나19로 이전과는 다른 복지 분야 문제들이 야기되면서 논의와 협력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대상자는 사회복지 유관 기관, 시민단체 등 복지 현장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과 복지 현장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재단, 지원센터 등) 실무자들로, 워크숍은 참가자 모집부터 큰 관심을 모았다. 당초 30명 정원으로 모집했으나, 예상과 달리 150여 명의 지원자가 대거 몰리면서 참가자 정원을 늘렸을 정도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현장 상황에 직면한 많은 활동가가 얼마나 고민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워크숍은 활동가들이 문제 정의 프로세스를 쉽게 이해하고 시도해보도록 카카오임팩트100up이 만든 문제 정의 프로그램을 활용해 진행했다.

4 워크숍은 카카오임팩트100up의 문제 정의 프로그램을 활용해 진행했다.
5 카카오임팩트100up 김태완 차장의 강연 모습



변화의 해답을 찾는 여정, 문제 정의

워크숍은 ●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복지 전환 ● 돌봄 공백의 공동체적 해결 ● 코로나19 지속 상황에서 심리·정서 고립 완화 ● 새롭게 드러나는 교육 격차 해소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원 사업 등 모두 다섯 가지 문제 정의 주제로 진행했다. 다양한 복지 현장에서 활동하는 참가자들은 코로나19의 대응 경험을 나누고, 이전과는 다른 상황에서 야기되는 다양한 문제의 해결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사랑의열매 김연순 사무총장은 “문제 정의 워크숍을 통해 사회복지, 시민사회, 중간 지원 조직 간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면서,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랑의열매는 현장의 이야기들을 듣고 고민하며 새로운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나눔문화연구소 박미희 책임연구원, 나눔사업본부 이영주 팀장, 전략기획본부 김희정 과장, 마케팅본부 이윤나 팀장

포스트 코로나
특별 좌담회

코로나19 이후, 우리는 준비하고 있나요?

문제 정의 워크숍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문제를 확인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사랑의열매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에서 분야별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PART 1. 사랑의열매, 무엇을 했나



“영문 웹진을 발간하고,
국내 민간단체들의 노력을
아카이빙하면서 국내외 민간단체들과
코로나 대응을 위해 소통하고
협력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략기획본부 김희정 과장

이윤나 마케팅본부 홍보기획팀장(이하 이윤나) 사랑의열매는 코로나19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오늘 이 자리에는 배분, 연구, 소통을 담당하는 분들을 모셨다. 코로나 19 위기상황에서 특히 배분의 역할이 중요하고 어려웠을텐데 어떻게 대응해왔는지 궁금하다.

이영주 나눔사업본부 배분기획팀장(이하 이영주)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현장에 필요한 마스크·체온계 등 보건 의료 용품을 긴급 지원하고, 돌봄 서비스 공백 대응을 먼저 시작했다. 사랑의열매가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네 가지를 생각했는데 1) 방역 및 위생 관리 2)취약해진 분들에 대한 생계 지원, 3)돌봄 등 복지 서비스 공백 지원 4)의료 활동 지원 및 의료진, 자원봉사자 지원이었다. 초기에는 방역과 위생용품의 지원이 다수였지만, 상황이 지속되며 서비스 공백 지원, 생계 지원 등이 유효했다.

이윤나 코로나19 상황에서 배분 지원은 기존과는 많이 달랐다.

이영주 일정 기간이 소요되던 배분 절차를 간소화해 단 4일 만에 지원이 이루어질 정도로 절차나 방법 면에서 기존 틀을 깨는 여러 시도가 있었다. 쉽지는 않았지만 신속하게 배분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현장에서 많은 호응이 있었다.

이윤나 코로나19가 팬데믹 상황이 되면서 사랑의열매 사업이 국내외적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김희정 전략기획본부 소통협력팀 과장(이하 김희정) 한국의 민간차원의 대응 상황에 대해 공유하기 위해 영문 웹진을 발간했다. 웹진에는 긴급지원 상황에서 사랑의열매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대처했는지에 초점을 맞췄고, 세계공동모금회(UWW) 뉴스레터 메인 화면에 소개될만큼 주목을 받았다. 또 국내 민간단체들의 지원과 노력을 공유하고 기록하기 위해 오렌지레터와 연계해 아카이빙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다양한 단체들과 협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PART 2. 코로나19, 달라진 복지 환경의 문제 등장

이윤나 얼마 전, 나눔사업본부에서 복지 현장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걸로 안다.

이영주 코로나19와 관련한 기획 사업을 준비하며 설문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온라인 설문 조사는 400여 개 기관과 단체에서 응답해주셨는데, 읽다 보니 가슴이 먹먹했다. 돌봄, 자원봉사, 교육 사업 등 우리가 대면으로 쉽게 하던 일들이 거의 진행되지 않거나 온라인으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다. 온라인이 익숙하지 않은 노인, 장애인분들은 비대면 서비스가 익숙하지 않아 기관들의 고민이 많았고, 앞으로 이러한 변화들을 일상으로 생각하고 사업을 계획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았다.

이윤나 이러한 배분 기획 과정에서 나눔문화연구소의 코로나19 관련 연구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안다.

박미희 나눔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이하 박미희) 연구분야에서도 ‘코로나’는 중요한 주제로 관심을 받았다. 이런 맥락에서 전문가, 일반인, 사랑의열매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정치·경제·사회 등 32개 이슈를 영역별로 정리했고, 이 중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사회 이슈 10개를 선택했는데, 흥미로운 점은 응답자 모두 미취업자와 실업자가 급증하는 문제를 가장 큰 이슈로 꼽았다. 그만큼 경제, 특히 고용과 소득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이윤나 현장의 이야기와 연구결과가 맞닿아 있는 것 같다.

이영주 범위와 깊이가 방대한 코로나 19사업을 기획하며 어려움이 많았는데, 나눔문화연구소의 트렌드 연구결과와 전략기획본부의 외부 소통 내용들이 배분 기획에 큰 도움이 되었다.



“코로나19로 야기된 한국사회의 이슈를 도출하고 사랑의열매가 집중해야 할 나눔의 영역을 ‘삶의 보호’와 ‘삶의 전환’으로 제안했습니다.”

-나눔문화연구소 박미희 책임연구원



PART 3. 향후 문제 해결 위한 사랑의열매의 모색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활동방식을 바꾸고 새롭게 발생한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는 ‘사회백신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나눔사업본부 이영주 팀장



이윤나 이번에 진행한 문제 정의 워크숍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나?

김희정 결국 민간 방역, 민간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는 데 모두 동의했다. 무엇보다 워크숍을 통해 그동안 해결책 중심의 사업에 익숙하던 사람들이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디테일하게 보는 자극을 받은 것 같다. 또 민간 영역에서 가장 큰 조직인 사랑의열매가 이런 소통의 장을 계속 만들어 서로 협력하고 극복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절감했다.

이윤나 연구적 측면에서 이런 시대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박미희 트렌드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삶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과 삶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 이렇게 두 가지 메시지로 정리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돌보고 지원하는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이고, 질병 뿐 아니라 환경 및 생태위기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어 지원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또 재난적 상황에서 국가만큼 민간의 역할도 분명 중요하기 때문에 민간영역을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일에도 힘써야 한다.

이윤나 나눔사업본부에서 현재 준비하고 있는 코로나19 지원 계획이 궁금하다.

이영주 사랑의열매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관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과의 소통, 기반이 되는 연구가 필요한데, 이번 코로나19의 경우 더욱 이 작업이 필요하고 중요했다. 다양한 의견을 담아 ‘코로나19를 대비하는 사회백신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변화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던 일들을 안전한 대면, 혹은 비대면으로 바꾸어나가는 일, 미등교,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교육 격차 심화 등 새롭게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만들어내는 것을 현장과 함께 해 나갈 예정이다.

이윤나 오늘 좌담회를 통해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한 사랑의열매의 역할에 대해 되짚어 볼 수 있었다. 마케팅본부도 이러한 내용들을 국민들에게 잘 알려 내도록 하겠다. 코로나19를 대비하고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부탁드립니다. 🍀

시설 퇴소 청년들을 자립 위해 '드리밍 청년' 기금 조성하고 10억 기부한

'배틀그라운드' 개발사 블루홀 공동 창업자 김강석 前 대표

“나눔은 베품이 아닌 인생의 사명이고 본질이라 배웠습니다”

시설 퇴소 청년들을 위해 10억 원을 기부한 게임 개발사
블루홀(現 크래프톤) 공동 창업자 김강석 前 대표는
자신은 그저 우편배달부나 택배 기사 역할을 맡았을 뿐이라
말한다. 그렇기에 앞으로도 모두 다 정확하게 배달을 해야
한다면서 말이다. 글강은진 사진김기남

가족과 함께 한 결정

유명 온라인 게임 '배틀그라운드' 개발사 블루홀(現 크래프톤)의 공동 창업자 김강석 前 대표가 사랑의열매에 10억 원을 약정 기부하며 한국형 기부자 맞춤형기금 9호로 가입했다. 이 기금은 김강석 대표의 뜻에 따라 아동 양육 시설, 공동생활 가정, 가정 위탁 등 시설을 퇴소하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한다. 일명 '드리밍 청년' 기금이다. 이번 기부는 김강석 대표와 가족들이 함께 상의해 결정했는데, 김 대표는 가족 프로젝트였다고 말했다. “제가 먼저 기부 의사는 밝혔지만, 지원 대상이나 방법 등 세부적인 것은 가족들과 두 달가량 상의했어요. 평소 아이들과 대화할 시간도

부족했는데, 이번 기회에 아이들 생각도 알게 되어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얼마 전에는 차를 타고 가는데, 둘째 아이가 문득 빈부 격차가 큰 사회는 좋지 않은 것 같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김강석 대표는 앞으로도 기부나 사회 환원 등 다양한 사회 활동을 가족들과 함께 할 계획이다. 김강석 대표의 표현을 빌리자면 가족과의 팀플레이이다.

기부 후 더 큰 책임감 느껴

김강석 대표의 기금 가입식은 8월 8일, 사랑의열매 6층 전달식장에서 진행했다. 김강석 대표와 기부를 상의하고 결정한 아내와 두 딸이 함께 자리했다. 굉장히 특별한





“
재능이든 재물이든
자기 손에만 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가르침을 믿고
있어요. 저는 그저 정확하게
다 배달해야 하는 우편배달부
같은 역할인 거죠. 이웃에게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전달해주는 거라
이해하고 있어요.”

시간이었겠다며 인사를 전하니, 김강석 대표와 가족들은 그저 빨리 끝나기만 바랐다고 한다. “아내가 이런 행사를 하고 그럴 거면 기부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기사도 났는지 누가 아내에게 사진을 찍어 보낸 모양이에요. 제게 그걸 보내면서 이런 게 왜 나오느냐고... 오늘 인터뷰도 아내는 모르고 있습니다.(웃음)”

사랑의열매 회보 인터뷰도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김강석 대표에게 강권하다시피 청해 마련한 자리였다. 김강석 대표와 가족들의 성정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기부 후에 오히려 더 큰 책임감과 부담감을 가지게 됐어요. 이 기금이 잘 진행되고 발전하도록 이제 첫걸음을 떼 션이니까요. 연민이나 애뜻함을 가지고 단발성 이벤트에 그칠 게 아니라, 테마와 철학을 가지고 꾸준히 잘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힘든 청년들에게 보내는 사과와 응원

청년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업계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김강석 대표가 청년 세대 지원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어쩌면 필연에 가까워 보였다.

“게임업계는 고객도, 같이 일하는 동료도 젊은 세대가 많아요. 또 작년에 모교에 장학금을 지원하면서 대학생들 이야기도 많이 듣게 되었고요. 그 후로 자연스럽게 청년들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요즘 청년들은 정말 힘들다. 꿈꾸는 것조차 벅차다고 말한다. 김강석 대표는 그런 청년들의 어려움이 기성세대 탓인 것만 같다. 청년들이 힘들게 사는 사회는 결국 기성세대가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늘 미안하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생관이 올바른 청년을 많이

만나게 돼 김강석 대표는 항상 놀란다고.

“모교 후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돈을 지원받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누군가에게 응원받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기금을 지원받는 청년들은 보다 어려운 환경에 있으니 더 외로울 거예요. 그들이 심리적으로 지지받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나눔, 삶의 사명이자 본질

김강석 대표는 확고한 나눔 철학을 가지고 있다. 개인이 가질 만한 적당한 몫 이상은 재능이든 재물이든 이웃과 나누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나눔은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사명이고 본질이라고 배웠다면서 말이다. 자기 몫의 일을 하는 것이기에 칭찬받을 일도 아니란다.

“생을 다한 후 제가 살아온 삶에 대해 평가받을 때, 왜 100을 모았는데 다 쓰지 않고 50을 남겼냐고 하면 아찔해요. 내 울타리 안에 머물게 하면 안 돼요. 자꾸 흘러보내야 하지요.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흘러보내야 하고요.”

김강석 대표는 자신의 기부는 우편배달부나 택배 기사의 역할일 뿐이라고 했다. 정확하게 다 배달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면서 말이다.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전달해주는 거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택배 기사 역할이니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지요. 사실 택배를 전해주기 보다는 택배가 저한테 오길 바랐죠.(웃음)”
담담하게 말을 이어가는 김강석 대표의 한마디 한마디가 미리 청년들 대신 고마움을 전하고 싶은 만큼 크나큰 위로가 됐다. 이미 김강석 대표는 청년들에게 큰 버팀목이었다. 🍓

다자녀·한부모 가정 아동을 위해 기부한 임영웅 팬클럽 '임히어로 서포터즈'

“나눔을 통해 임영웅 님에 대한 사랑을 전해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스타에게 받은 위로와 감동을 나눔을 통해 전하는 이들이 있다.
스타와 관련한 기념일이나 행사가 있을 때마다 주기적으로 기부해 이미 누적 금액만 4,000여만 원에 달한다.
바로 트로트 가수 임영웅 팬클럽 '임히어로 서포터즈'다. 글 강은진 사진 사랑의열매





나눔, 내 스타에게 전하는 마음

트로트 가수 임영웅의 팬클럽 '임히어로 서포터즈'가 화제다. 임히어로 서포터즈 회원들은 임영웅이 가수로 데뷔한 8월을 기념해 사랑의열매에 1,500만 원을 기부했다. 기부금은 임영웅의 고향인 포천시 관내 다자녀·한부모 가정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지원한다. 회원들의 기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 대구 의료진들에게 간식을 전달했고, 임영웅의 생일이 있던 6월에는 포천시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500만 원을 기부했다. 이렇게 회원들은 임영웅과 관련한 기념일이나 행사가 있을 때마다 기부해 누적 금액만 4,000여만 원에 달한다. 카페 운영을 맡고 있는 카페지기는 임히어로 서포터즈를 기부 중심의 서포트 카페라고 소개했다.

“영웅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최고의 방법이 나눔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눔을 하면 할수록 저희에게 오히려 더 큰 고마움으로 되돌아오더라고요. 영웅님을 만나고 기부까지 하게 된 회원들의 자부심이 아주 큼니다.”

기부 통해 임영웅님 응원 계속할 터

임히어로 서포터즈의 나눔은 계속될 예정이다. 기부가 끝남과 동시에 다음 기부 계획을 세우는 게 임히어로 서포터즈 회원들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다.

“우리 영웅님도 유년시절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노력해 가수 임영웅이라는 꿈을 이루었잖아요. 저희의 작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도 우리 영웅님처럼 꿈과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 응원할게요!”

임히어로 서포터즈 카페지기는 사랑의열매 기부금을 통해 지원받게 될 다자녀 및 한부모 가정의 이웃에게도 따뜻한 메시지를 잊지 않았다. 임히어로 서포터즈는 임영웅의 팬이라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임영웅 노래의 힘은 진정성에서 나온다고들 한다. 그런 가수의 팬이어서 그럴까, 기부 사실을 임영웅도 알고 있는지 물으니 “기사를 봤다면 아마 알 수도”라고 한다. 이럴 때 ‘찐 팬’이란 말을 쓰는 걸까. 끝까지 멋있는 임히어로 서포터즈다. 🍓



심각한 피해에 전국이 시름

한마음 한뜻으로 나선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

54일이라는 역대 최장기간을 기록한 장마가 드디어 멈췄다.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 많은 지역에서 재산 피해는 물론, 안타까운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다. 피해 복구가 빨리 이루어져야 하지만, 코로나19 감염 재확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사랑의열매가 피해 복구를 위한 전방위 지원에 나섰다. 글 이선희 사진 사랑의열매

피해 지역에 13억여 원 긴급 지원

사랑의열매는 집중호우 피해 지역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지원을 실시했다. 사랑의열매 예종석 회장은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다. 주택과 농경지 침수 등으로 생활 터전을 잃은 이웃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지원한다”며 사랑의열매가 피해 복구에 함께할 것을 덧붙였다. 이번 긴급 지원은 집중호우 피해 지역 주거 복구 및 저소득층 생계비 등 총 13억 3,100만 원을 투입했다. 이 외에도 각 지회별로 기획 및 긴급 지원 예산을 활용해 추가 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특별 모금에 기업·유명인의 기부 잇따라

한편 8월 5일부터 31일까지 피해 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모금을 전개했다. 많은 기업과 유명인이 성금을 전달하며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탤었다. LG그룹에서 20억 원, 네이버에서 15억 원, GS그룹에서 10억 원, 롯데그룹 9.5억원, LS그룹 5억 원, 경동제약과 에터미가 각 1억 원을 기탁했다. 대림산업 이준용 명예회장이 호우 피해 지원을 위해 사재 20억 원을 기부했으며, 배우 신민아와 김우빈이 각각 5,000만 원을, 사랑의열매 홍보대사인 이연복 셰프가 2,000만 원을, 뷰티크리에이터 썬님이 500만 원을 전달하는 등 많은 이가 나눔의 손길을 더했다.

“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국의 많은 분에게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 - 배우 신민아 & 배우 김우빈

“ 아직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장마 수해까지 겹쳐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성금을 보냅니다. ” - 사랑의열매 홍보대사 이연복 셰프

수해 복구 현장에서 흘린 구슬땀

피해 복구 지역의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해 사랑의열매 직원들이 현장 지원에 나섰다. 열흘 사이 6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의 농가와 비닐하우스를 찾아 토사를 퍼내고, 물에 젖은 집기를 닦

는 등 피해 지역의 빠른 복구를 돕고자 했다. 현장 지원에 참여한 사랑의열매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와 더불어 집중호우 피해까지 겹쳐 실의에 빠진 이웃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 싶어 팔을 걷어붙이고 피해 복구 현장을 찾았다”며, “수해 지역 대비 지원 인력이 부족해 힘을 보태고자 이번 지원을 실시하게 됐다”고 전했다. 경기 지역 외에도 충남 천안, 세종, 전북 등 각 수해 지역에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이 투입되어 이웃을 위로하고 복구 작업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

수해 복구를 위해 현장 지원에 나선 충남 천안(위), 전북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아래)



미혼모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여성인권동감

1%의 복지 사각지대를 비취 생명의 빛을 밝히다



2019년 사랑의열매 창립 21주년 기념식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역사회분야' 금상을
수상하는 (사)여성인권동감

출생률 0.97명, 저출생은 여성만의 책임이 아니다.

남녀 당사자와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다. '저출산'이란 표현 대신 '저출생'이란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미혼모는 출산과 양육 전 과정을 전적으로 떠맡는 경우가 많다.

(사)여성인권동감은 이처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미혼모들의 책임을 덜어주고 삶의 기반을 마련해주는 단체다.

글 강보라 사진 제공 (사)여성인권동감



미혼모는 출산을 위해 사회복지 생활 시설에 입소하거나,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맹점은 한부모 증명서가 필요하다는 것.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에 한부모로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임신 사실을 주변에 알리기 꺼려 하는 미혼모 입장에서는 이용하기 어려운 제도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미혼모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미혼모의 심적·경제적 고통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사)여성인권동감(이하 동감)은 이처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1% 미혼모의 출산부터 자립까지 도와주는 통합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후원에만 의존했다면 소수의 지원으로 그쳤겠지만, 사랑의열매의 든든한 지원으로 통합 지원에 탄력을 받을 수 있었다. 동감은 지난 1년간 100명의 여성을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사랑의열매 지원 덕분에 목표치의 191%를 달성할 만큼 큰 반향을 일으켰다.

미혼모 A 씨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부산에 사는 A 씨도 동감을 통해 새 희망을 가졌다. 그는 첫 번째 남편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

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연락이 두절됐다. 어렵게 연락이 닿은 남편은 이미 다른 여성을 만나고 있었으며, 두 번 다시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했다. 이런 과정과 상황에서 상처받은

두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아이를 지켜낸 산모 덕분에 귀한 생명이 탄생했다.



아이는 ADHD 증세를 보였다. A 씨는 아이까지 감싸주는 새로운 남성을 만나 결혼을 준비하며 두 번째 임신을 했다. 문제는 남성의 부모님 반대를 극복하지 못한 것. 결국 A 씨는 한부모이자 미혼모가 됐다. 사회복지 생활 시설에 여러 차례 문을 두드렸지만, ADHD 자녀로 인해 입소가 불가하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그때 마지막 희망이 되어준 게 동감이었다. A 씨는 동감과 사랑의열매로부터 출산비, 분유, 기저귀 등을 지원받아 둘째를 무사히 출산할 수 있었다.

사각지대에 놓인 전국의 미혼모, 상담 문의 쇄도

부산에서 인천까지 한달음에 달려온 A 씨의 사례는 한국 사회에서 미혼 여성이 혼자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실히 보



1 신생아실에 누워 있는 아기를 바라보는 엄마의 뒷모습에서 진한 모성이 느껴진다. 2 재봉틀 실습 중인 미혼모. 동감에서는 다양한 실습으로 직업교육도 연계하고 있다.



여준다. 축복받아야 마땅한 임신·출산 사실이 미혼모 여성에게 오히려 차별과 폭력 발생의 두려움으로 다가온다.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응원과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대다수다. 미혼모 대부분이 비공개 출산을 희망하지만, 정부 지원은 개인 정보를 공개해야만 가능하다. 결국 출산 비용, 구비 서류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홀로 출산하거나 유기, 베이비박스 등 바람직하지 못한 선택을 강행하기도 한다.

동감은 한 명의 여성이라도 더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SNS, 맘카페 등을 이용해 미혼모 지원 사업을 적극 홍보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미혼모들에게 입소문 나면서 동감에는 전국에서 온 문의와 상담이 쇄도했다. 지난 1월부터는 인천 지역에 국한하던 사업 범위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게 됐다. 그 결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들이 하나둘 관심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멘토링·직업훈련 통해 용기 얻은 여성들,
세상 밖으로...**

미혼모는 출산이 끝이 아니다. 앞으로의 양육과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 이는 산모와 아이의 생존 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동감은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세어하우스를 운영하며 비슷한 환경의 미혼모들이 교류하고, 서로의 성장을 도모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또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해 불안한 몸과 마음을 다잡아갔다. 임신·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돼 직업이 없는 여성에게는 직업훈련과 구직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왔다. 동감을 통해 자신감을 얻은 여성은 미래 계획 설계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미혼모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이웃이다. 지금도 어디선가 동감과 사랑의열매의 관심 속에 또 하나 귀한 생명의 빛을 터뜨리고 있을 것이다. 🍀

3 출산을 앞두고 산통 중인 미혼모. 아픔과 불안을 이겨낸 뒤에는 아이와 함께하는 또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
4 출산 전후의 미혼모들이 머무는 숙소인 세어하우스 모습



4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해주세요!”

박미선 (사)여성인권동감 사무국장

출산은 축복받을 일이잖아요. 그런데 미혼모 여성이 모두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건 아니라, 입장을 선택하기도 해요. 그럴 때는 마음이 무척 아프지요. 대신 양육을 선택한 여성들이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이런 여성들이 용기를 갖고 세상에 나설 수 있게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라요. 한편 임신하고 고민하는 미혼 여성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해주면 좋겠어요.



3

지역 의료 넘어 세계로 우뚝 서다

의술과 인술로 지역 공동체 지키는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은 한국 현대 의학이 시작된 곳으로, 110여 년의 역사 속에서
대구·경북 권역의 의료를 책임져왔다. 다양한 보건 의료 지원 사업으로
소외 계층의 생명을 지켜낸 것도 이들이다. 최고의 의술과 최선의 인술을 더한
곳에 경북대학교병원이 있다. 글강보라 사진 경북대학교병원





착한일터 모금 덕에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의 다양한 체험 교육이 가능해졌다.

The Best 착한일터에서 더 착한 일을 하다

경북대학교병원(병원장 김용립) 임직원은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기부하는 사랑의열매의 '착한일터'에 참여하고 있다. 사랑의열매는 올해 전국 1,500여 개 기업·기관·단체 등 착한일터 중에서 나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회의 귀감이 된 46개 기관을 선정했다. 경북대학교병원은 착한일터 가운데서도 가장 우수한 '더 베스트(The Best) 착한일터'에 이름을 올렸다. The Best 착한일터는 3년 이상, 연간 1,000만 원 이상 기부, 임직원 50% 이상 가입 등 엄격한 기준을 거쳐 선발한 곳이다.

경북대학교병원은 착한일터의 모금을 통해 인근 지역아동센터를 후원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가정은 기초수급·차상위 가정 및 저소득 가정으로, 경제적으로 곤란하거나 조손·한부모·맞벌이 가정 등 적절한 보살핌을 받기에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다. 경북대학교병원은 이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후원하는 지역아동센터 중 하나인 오탁이교실에는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한 놀이 문화 지원 사업 '싸이(Science)야~놀자!'를 지원하고 있다. 덕분에 아이들은 평소 접하기 힘든 ICT로봇체험관과 드론 체험 등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과학 놀이 문화를 접할 수 있다. 이 시기 아이는 새로운 경험만으로도 인생이 바뀌는 꿈을 품게 된다. 그래서 더 소중한 지원이다.

코로나19 최전방에 선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은 코로나19 사태에서 가장 빛나는 활약을 펼쳤다. 2월 18일, 첫 번째 코로나19 감염 환자 발생 후 환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3개월 동안 환자 치료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 지역의 최중증 환자의 치료를 전담하기 위해 집중치료실과 병동 2개 층을 음압 병상으로 구성해 CRRT(지속적 신대체요법) 치료, 고유량 산소호흡기 치료, ECMO 치료 등 중증 환자와 최중증 환자 치료에 앞장서 현재까지 총 113명의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했다(2020년 8월 19일 기준).

코로나19라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시민들을 지켜낸 경북대학교병원





농촌 의료봉사에서 진료를 보는 의료진 모습

코로나19 지역 확산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에서 감염병 전파 차단과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경증 환자를 격리하는 생활치료센터도 운영했다. 전국 최초로 대구중앙교육연수원에 개소한 대구1생활치료센터, 경북대학교 기숙사를 활용한 대구2생활치료센터와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이 의료 지원한 경북대구7생활치료센터를 지속적으로 관리했다. 생활치료센터는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환자 확산에 따른 의료 체계 붕괴를 막고, 최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신의 한 수'로 언급되며 K-방역의 새로운 모델이 되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 같은 시간에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경북대학교병원이 있기 때문이다.

산간벽지로 떠나는 국내외 의료봉사

본업인 의료 지원을 통해 의료봉사도 벌인다. 지역 내에서 보건의료 수요는 높지만, 의료 서비스 접근성과 건강 수준이 낮아 가장 취약한 곳으로 떠난다. 경북대학교병

원은 의료 지원의 컨트롤 타워 역할로 지역 주민의 선호도가 높은 내과, 정형외과, 신경과, 피부과, 안과 위주로 진료 과목을 편성해 지역의 거점 공공 병원과 유기적인 진료를 펼친다. 의료봉사에서 암과 같은 중증 질환을 조기 발견한 사례도 다수 있다. 진료 때 이상 소견자를 발견하면 경북대학교병원의 진료를 연계해 빠른 치료를 돕는다. 이처럼 수준 높은 의료 지원으로 산간벽지에서도 건강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이다.

국내는 물론 의료 기술과 전문 의료진이 부족한 의료 취약 국가를 위한 나눔 의료 및 해외 의료봉사도 실시하고 있다. 해당 국가 의료진에 의료 기술을 전수하고, 협력을 통해 해당 국가에서 보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다. 매년 공공 의료 사업의 일환으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해외 어린이들을 방문하거나, 초청해 수술도 지원한다. 카자흐스탄 해외 의료봉사 당시 수술했던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5세)를 한국으로 초청해 두 번째 희망을 선물하기도 했다. 몽골에서 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은 어린이(4세)의 화상 치료도 지원한 바 있다. 지금까지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스와질랜드, 카자흐스탄 등에서 소아 심장병 수술과 구순·구개

의료봉사 중 중증 질환을 발견하는 일도 종종 있어 진료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신뢰가 높다.





경북대학교병원의 의료봉사는 지역사회를 넘어 세계로 뻗어간다. 한국 의료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언제 어디서나 환영받는다.

열 수술 등으로 지금까지 400여 명에 가까운 아이가 의료 혜택을 받았다. 경북대학교병원은 해외 의료봉사와 나눔 의료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세계 여러 나라에 알리고 있다.

지역사회에 나눔을 더하다

경북대학교병원은 지역사회의 나눔에도 앞장선다. 2017년부터 대구노숙인시설연합회와 업무 협약을 통해 진료비에 대한 부담으로 3차 의료 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쪽방촌 및 쉼터의 중증 질환 노숙인에게 진료와 의료비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 지원으로 삶의 희망을 잃은 노숙인의 건강관리와 인식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대구 지역 3차 의료기관으로는 유일하게 '노숙인 의료급여 1종'에 대한 수가를 적용함으로써 대학병원의 노숙인에 대한 의료 접근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대구시의 달구벌건강주치의 사업과

경상북도의 취약 계층 의료 안전망 구축 사업을 통해 대구·경북 지역 내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시·군·구 보건소, 지방 의료원과 연계해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연계 기관 담당자들과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대구·경북 권역의 건강 안전망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직접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보건 향상과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다. 의료 지원 외에도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 1사1촌 자매결연, 농번기 농촌 일손 돕기, 농산물 직거래 장터 개최, 자매결연 마을의 농산물 구입 등을 통한 지역 사회 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경북대학교병원의 역사는 이처럼 공공 의료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함께한 시간이었다. 이 시간이 있어 더 건강하고 발전된 공동체가 될 수 있었다. 사람 살리는 병원이 지역사회도 살릴 수 있다는 것, 이 놀라운 사실을 경북대학교병원이 알려주고 있다. ❀

찬란한 영광을 새겨 넣은 무왕의 또 다른 백제

전북 익산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은 백제 문화를

“검소하면서도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백제 문화의 정수를 특히 익산에서 만날 수 있다.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빛바래지 않는 찬란한 고도의 모습이 곳곳에 아로새겨 있다.

글 이선희 사진 사랑의열매, 익산시청 참고 자료 익산문화관광 홈페이지



오래 기억하고 싶은 익산 대표 관광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

미륵사지 미륵사는 백제 무왕이 건립한 사찰로, 연못에 미륵삼존이 출현해 창건했다는 설화가 전해진다. 당시 쇠퇴해가는 국운을 부흥시키기 위해 백제인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만든 백제 최대 사찰이다. 현재 남아 있는 석탑과 당간지주에서 백제의 미학을 엿볼 수 있다.

주소 전북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32-2 **문의** 063-830-0900



우리나라 첫 사제 김대건 신부를 기리는 곳

나바위성당 김대건 신부가 중국에서 사제 서품을 받고 황산 나루터에 상륙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했다. 한국전쟁 때에도 미사가 끊이지 않은 유일한 본당으로, 유서 깊은 가톨릭 성지다. 1906년 순수 한옥 목조건물로 지었지만, 증축을 거듭하며 한·양 절충식 건물로 형태가 바뀌었다.

주소 전북 익산시 망성면 나바위길 146 **문의** 063-861-8182



3,500여 개 장독이 만들어낸 장관

고소락 약 2만여 평 대지에 3,500여 개 장독이 정갈하게 놓인 장독 정원이다. 전통 방식을 고집하며 장을 담그는 곳이지만, 손때 짙은 항아리들을 보러 오는 사람이 많은 관광 명소다. 또 장독대를 둘러싸고 있는 기왓장 하나하나에도 전통이 깃들여 있어 구석구석 둘러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주소** 전북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424-14 **문의** 063-861-2288



길에서 만난 알록달록한 바람개비

성당포구 바람개비길 성당포구 마을 서쪽에 금강이 위치해 수리부엉이, 철새 등을 관찰할 수 있는 생태 체험 프로그램이 인기다. 또한 금강 변과 용안생태공원을 끼고 5km 넘게 이어진 바람개비길이 최근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가을이면 바람개비 옆으로 갈대가 일렁이며 낭만적 분위기를 연출한다.

주소 전북 익산시 성당면 성당로 762 **문의** 063-862-3918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 금풍상회, 가산장갑, 진가진연구소 착한가게 가입식 모습

착한가게 37개소 릴레이 나눔

인화동을 위해 몽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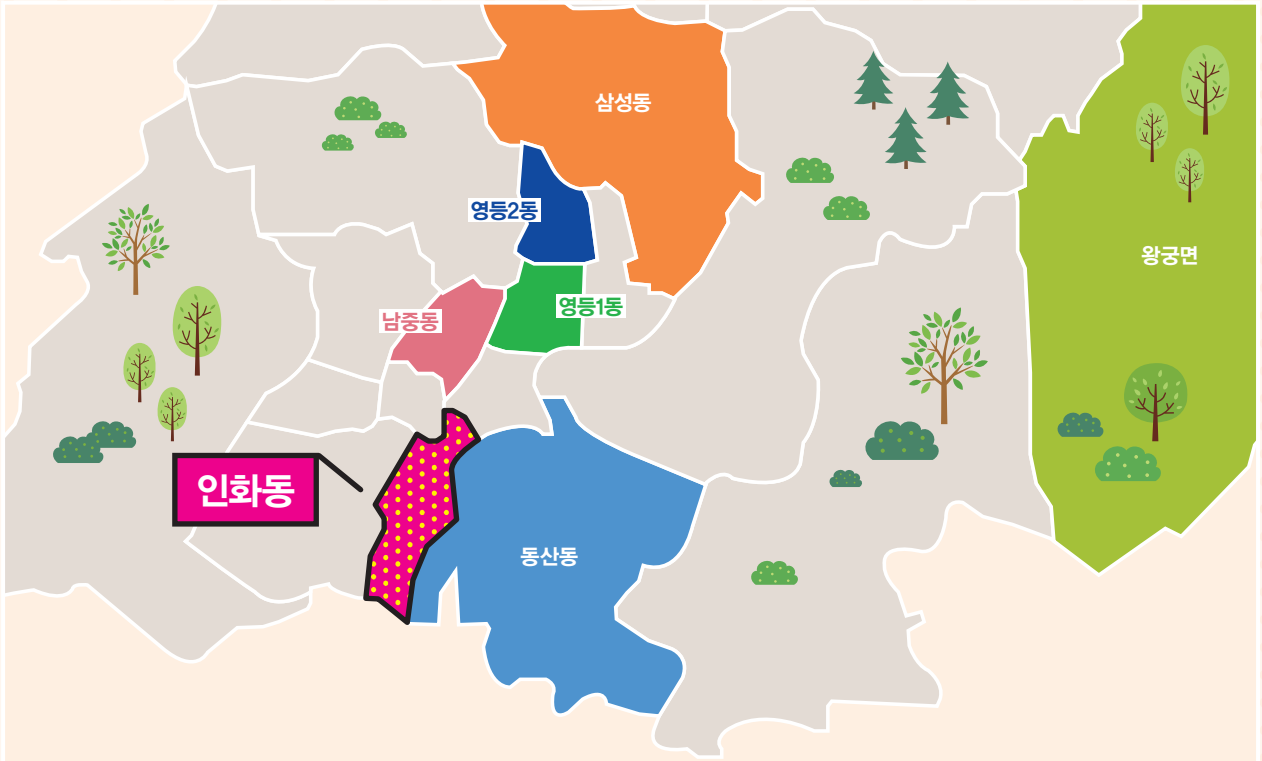
익산은 전북 14개 시군 중 착한가게 가입자가 가장 많은 곳이다. 특히 인화동의 착한가게 가입이 눈에 띄 정도로 두드러진다.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침체한 가운데 지난 3월에 6개소, 7월에 8개소가 착한가게에 대거 합류했다. 이로써 인화동을 기부처로 지정한 착한가게는 총 37개소(8월 24일 기준)다. 가입자 대부분 인화동에서 가게를 운영하지만, 가게 주소지와 상관없이 나눔을 실천한 경우도 있다. 앞으로도 전북 사랑의열매와 인화동행정복지센터, 인화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함께 지역 내 나눔 활동을 전개하며 인화동의 착한가게 가입 행진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

MINI INTERVIEW



윤가네삼겹살빠다귀탕 박경은·윤여중 대표

“매년 연말이면 기부금을 내곤 했는데, 2017년 우연한 기회에 사랑의열매 착한가게에 가입하게 됐어요. 해보니까 한꺼번에 큰 금액을 기부하는 것보다 정기기부하는 게 마음 부담이 덜하더라고요. 5년 넘게 가게를 운영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걸 보답하고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자 나눔을 이어오고 있지요. 인화동에 있는 분들이 유난히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크고 인정이 넘치는 것 같아요.”



음식	
● Café 42.195	063-854-2195
● 남부갈치조림	063-842-1989
● 대야식당	063-852-6669
● 동부김밥	063-842-5777
● 미가참치	063-852-6567
● 삼양순대	063-855-8341
● 양평해장국인화점	063-855-5005
● 에담촌	063-854-5919
● 완도전복	063-856-1234
● 윤가네삼겹살배다귀탕	063-841-7792
● 오유민동태마을	063-853-5288
● 일송	063-834-5070
● 전주소바	063-842-3288

● 진가진연구소	063-856-9207
● 한씨네대가추어탕	063-851-9192
● 한씨네덕장마을	063-851-9191
도소매	
● 가산장갑	063-854-7872
● 금풍상회	063-855-3286
● (유)대영건재	063-855-0622
● 대영646	063-855-0622
● 동진건강원	063-855-0559
● 세아자원	063-261-5244
● 세은공업사	063-853-0654
● 오케이모터스	063-843-4949
● 전일비니루상사	063-855-2547
● 정읍떡가름집	063-857-5648

● 좋은사람들성진	010-9664-5556
● 코튼퀵	063-852-3939
● (유)하영전기관리공사	063-834-5383
● (유)행복한푸드산업	063-857-4700
● 현대지게차판매(주)	063-843-4540
● 형제지업사	063-841-3074
● 형제철재	063-857-7758
숙박업	
● 삼모텔	063-843-0107
기타	
● 백호정육점	063-855-4746
● 변호사정남기법률사무소	063-857-3131
● 허영근약국	063-855-4332

안전하게 즐기는 문화생활

내 방 1열에서 관람하는 온라인 공연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에 따라 공연은 사실상 잠정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계속되고 있다. 덕분에 집에서 무료로 좋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는 사실. 게다가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안전하기까지 하니 그저 편안히 즐기면 하면 된다. 글 이선희 사진 현대차 정몽구 재단, LGA아트센터.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

프렐조카주 발레

〈프레스코화〉

프랑스 현대무용을 대표하는 안무가 앙줄랭 프렐조카주가 이끄는 '프렐조카주 발레단'의 최신작이다. 이번 공연은 중국의 소설집 〈요재지이〉에 수록된 벽화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다. 원작 주인공이 긴 머리 여인에게 매료되는 모습을 5명의 여성 무용수가 긴 머리카락을 흔드는 인상적인 군무로 표현함으로써 프렐조카주만의 '벽화로 재탄생했다.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안무에 아름다운 조명과 의상이 더해진 이 작품은 초연 후 언론과 관객들의 호평을 받았다.

- 9월 4일 오후 8시
네이버TV에서 온라인 중계



예술세상 마을 프로젝트-제6회 동편제마을 국악 거리 축제

현대차 정몽구 재단에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클래식과 국악 2개 테마로 나누어 진행한다. 앞서 개최한 계촌마을 클래식 거리 축제가 9월 4일에 막을 내리면, 9월 6일부터 25일까지 동편제마을 국악 거리 축제가 펼쳐진다. 6일 개막 공연에는 안숙선 명창, 김영임 명창, 송소희&두번째 달, 송가인 등 코로나19로 답답한 마음을 '소리'로 위로해줄 공연이 기다리고 있다. 또한 축제 기간 동안 진행되는 다양한 국악 공연은 예술세상TV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에서 볼 수 있다.

- 9월 6일 오후 7시 네이버TV와 예술세상TV(www.art-village.org)에서 개막 공연 생중계



2020 전주세계소리축제

올해 축제는 현악기의 매력을 집중 조명하며 현악기의 특징인 '줄'과 '이음'을 모티브로 연결, 연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긴다는 뜻으로 '잇다(Link)'를 주제로 개최한다. 실외 공연과 부대 행사는 전면 보류하고, 실내 공연 중심의 미디어·온라인 공연을 진행한다. 축제가 펼쳐지는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하루에 한 편씩 총 다섯 편의 공연을 지상파 방송 4개사(KBS, MBC, JTV, CBS)와 SNS 온라인 중계(유튜브, 페이스북)를 통해 선보인다.

- 9월 16일 오후 7시 40분 전주세계소리축제 유튜브 채널, KBS에서 개막 공연 <잇다> 생중계



코리아안심포니오케스트라 <브람스 시리즈 1>

코리아안심포니오케스트라가 가을을 대표하는 작곡가로 꼽히는 브람스의 교향곡을 무대에 올린다. <브람스 시리즈>는 9월, 10월, 11월에 각 한 번씩 총 세 번에 걸쳐 진행된다. 시리즈 포문을 여는 <브람스 시리즈 1>은 통찰력 깊은 해석이 돋보이는 정치용 예술감독이 지휘를 맡아 브람스 교향곡 제2번을 연주한다. 정 예술감독은 “뜨거운 낭만을 지녔으나 정제하고 또 정제해 빚어진 그의 교향곡들은 우리를 사유의 시공간으로 안내한다”며 “오늘날 혼돈의 시대 마음의 피난처가 되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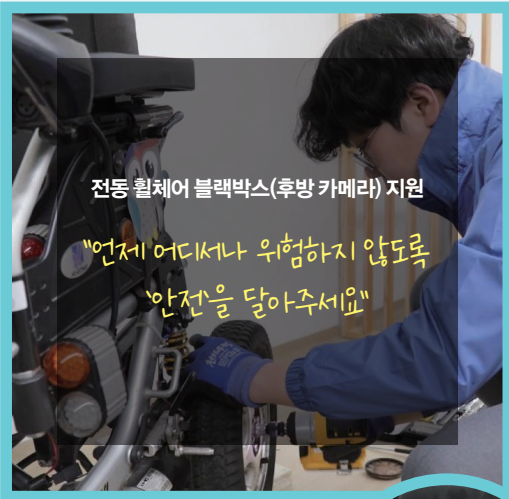
- 9월 17일 오후 7시 30분 네이버TV 생중계



세상을 바꾸는 모두의 펀딩

사랑의열매 클라우드펀딩

사랑의열매가 새로운 사회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가고자 사랑의열매 홈페이지를 통해 클라우드펀딩을 진행 중이다. 이번 달에는 전동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좀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블랙박스 겸 후방 카메라를 지원하는 펀딩을 진행한다. 클 이션희 자료 사랑의열매



추락, 충돌 등 전동 휠체어 사고율 40.3%

전동 휠체어는 중증 장애인의 발이 되어주는 대표적인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전동 휠체어의 사고율이 전동 이동 기기 중 가장 높을 정도로 우리 사회 곳곳에는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만약 전동 휠체어에도 자동차처럼 블랙박스와 후방 카메라가 있다면 어떨까요?

시야 미확보로 인한 사고를 줄일 수 있고, 운행 중 사고 시 억울한 일도 줄어들겠지요. 모두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동하는 세상, 여러분의 참여로 가능합니다.

후진할 때마다 조마조마한 마음... 즐거운 외출이 되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모금 기간 2020년 9월 30일까지

목표 금액 130만 원

모금 사용 예정 울산 지역 중증 장애인 대상 전동 휠체어 보조 기기(블랙박스 등) 장착 등

모금 참여 사랑의열매 홈페이지
(<https://chest.or.kr>) → 캠페인
→ 클라우드펀딩



QR코드를 찍으면 사랑의열매
(클라우드펀딩)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



제2회 사랑의열매 학술상 공모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 ‘나눔’을 연구한다면 주목!

지난해 첫발을 내디딘 ‘사랑의열매 학술상’을 올해도 공모한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연구자에게는 전문적으로 연구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클 이선희 자료 사랑의열매

사랑의열매 나눔문화연구소(이하 나눔문화연구소)는 지난 2005년 설립한 이래 우리 사회의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조사 연구, 정보 분석, 교류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전문 연구 기관이다. 나눔문화 기반 구축, 기부 환경 및 제도 분석, 배분 사업 성과 평가, 지역 사회복지 의제 연구 등을 주제로 연구 과제를 수행한다. 나눔문화연구소는 ‘제2회 사랑의열매 학술상’ 공모에 참여할 전문·신진 연구자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학술상을 통해 나눔과 관련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연구 과제를 발굴하고, 우리 사회 나눔문화 발전에 토양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공모 주제 ❶

나눔문화 확산과 관련한 내용으로 기부, 나눔, 비영리 분야에 대한 주제의 학술 논문 형식(미게재 및 게재 예정 논문 또는 기게재 논문 구분해서 공모 및 시상)

미게재 논문 총 6편 시상(일반 연구자 및 전문 연구자 부문 구분)

일반 연구자 대상(1편) 500만 원,

최우수학술상(1편) 200만 원,

우수학술상(1편) 100만 원

전문 연구자 대상(1편) 500만 원,

최우수학술상(1편) 200만 원,

우수학술상(1편) 100만 원

기게재 논문 총 2편 시상(연구자 부문 무관)

최우수학술상(1편) 200만 원,

우수학술상(1편) 100만 원

공모 주제 ❷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나눔문화에 대한 주제의 학술 논문

• 총 3편 시상(연구자 부문 무관)

대상(1편) 500만 원, 최우수학술상(1편)

200만 원, 우수학술상(1편) 100만 원

공모 대상 일반 연구자·전문 연구자

*개인 및 팀 지원 가능

*전문 연구자는 박사 학위 취득자

접수 기간 7월 6일~10월 11일

심사 결과 11월 중

제출 방법 이메일

제출(nanumresearch@chest.or.kr)

문의 사랑의열매 나눔문화연구소

(nanumresearch@chest.or.kr) 이메일 문의

*상세 내용은 사랑의열매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중양회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독립유공자자손 장학금 전달

지난 8월 13일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대표 송호섭)가 광복절을 기념해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사랑의열매와 광복회가 추천하는 독립유공자 자손 대학생 50명에게 각각 200만 원씩 총 1억 원의 장학금을 전달한 것. 이번 장학금은 삼일절을 맞아 출시한 무궁화 텀블러와 머그 판매 수익금 6,000만 원과 매장에 비치된 사랑의열매 모금함에 모인 4,000만 원으로 마련했다. 한편 스타벅스는 2015년부터 매해 독립 유공자 자손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코로나19 극복 광고에 함께한 기부스타 10인

코로나19 성금을 기부한 10인의 스타가 사랑의열매 광고 포스터에 별도의 모델료 없이 재능 기부로 참여했다. 배우 송윤아, 가수 슈퍼주니어 이특·예성·은혁·동해·려욱·규현, 축구 선수 이동국, 셰프 이연복, 방송인 현영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에게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기꺼이 동참했다. 스타들이 함께한 이번 광고 포스터는 지하철 스크린 도어, 서울 시내 장애인 버스 정류장 등에서 볼 수 있다.

서울



애경산업(주), 52억 원 상당 생활용품 전달

애경산업(대표 임재영)이 어려운 이웃과 코로나19 치료에 애쓰는 의료진을 위해 '힘내라! 서울 나눔 캠페인'에 생활용품을 전달했다. 자사의 세탁 세제·세면용품·화장품 등 총 52억 원 상당으로, 이는 애경 기부 사업 최대 규모다. 기부한 물품은 서울 사랑의열매를 통해 (사)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에 전달해 서울시 관내 복지시설과 코로나19 의료인 단체에 배분할 예정이다.



크린랩, 서울 사랑의열매 나눔명문기업 가입

국민 생활용품 기업 크린랩(대표 승문수)이 서울시 관내 지역아동센터와 쪽방촌 주민을 위해 현금 1억 원과 생활용품 4억 원 상당을 기탁하며 서울 사랑의열매 나눔명문기업에 가입했다. 기탁한 물품은 MB 필터 마스크와 위생 장갑, 고무장갑, 주방 랩, 지퍼백 등이다. 승문수 대표는 "코로나19 여파로 전국 지역아동센터 및 쪽방촌 등 특히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은 만큼 지속적인 사회 공헌 활동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부산



지역사회복지관에 비대면 생활방역기 52대 지원

부산 사랑의열매가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지역 주민의 안전한 복지관 이용을 위해 비대면 생활방역기 52대를 부산 지역사회복지관 52개소에 전달했다. 발열 확인과 손 소독이 동시에 가능한 생활방역기는 총 1억 8,000여만 원 상당으로 부산 지역에서 진행한 코로나19 특별 모금 성금을 통해 마련했다. 부산사회복지관협회 김경선 회장은 “복지관 종사자와 이용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2020년도 연합모금 사업 협약체결

지난 8월 18일 부산 사랑의열매는 연합모금 사업 파트너 기관으로 선정된 사회복지 기관 5개소와 2020년도 연합모금 사업 협약식을 진행했다. 5개 기관은 8월부터 오는 11월까지 4개월간 각 기관별로 모금 활동을 진행한다. 부산 사랑의열매는 모금액 규모에 맞춰 추가 매칭금을 지원해 기관의 사회복지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2016년 시작한 연합모금 사업은 자체적인 모금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과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대구



대구상공회의소 사회공헌위원회, 성금 기탁

지난 7월 20일 대구상공회의소 사회공헌위원회가 대구 사랑의열매에 대구 관내 어려운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성금 2,500만 원을 기탁했다. 성금은 소외된 홀몸 어르신들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여름 이불 500세트를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 구입한 이불은 대구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전용만)을 통해 홀몸 어르신 500명에게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



한국장학재단, 학교 밖 청소년 합창단에 성금 전달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지난 7월 23일 대구 사랑의열매를 통해 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이경애)에 성금 3,500만 원을 기탁했다. 기탁금은 학교를 다니지 않는 대구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 예술 관련 진로 탐색과 자기 계발을 돕기 위한 합창단 활동 지원에 사용한다. 한국장학재단은 지난해 해외 봉사 활동과 문화 체험을 지원하기 위해 2,000만 원을 기탁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인천



‘코로나19 극복, 꿈 가득·행복 나눔 상자’ 전달식 진행

인천 사랑의열매는 지난 8월 11일 인천광역시기부식품 등 지원 센터에 ‘코로나19 극복, 꿈 가득·행복 나눔 상자’를 전달했다. 인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인천 소재 13개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에서 생산한 쿠키, 구이 김, 칫솔, 비누 등 10여 종의 식품과 생활용품을 구입해 총 3,401상자를 제작했다. 이번 사업은 1억 규모의 재활 시설 생산품 구입으로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 안정을 도모하고, 키트 전달로 어려운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도왔다.



(주)선광, 인천 나눔명문기업 13호 가입

지난 8월 12일 (주)선광(대표 심충식, 이도희)이 인천 사랑의열매 나눔명문기업 13호로 가입했다. 인천 대표 종합 물류 전문 기업인 (주)선광은 2002년부터 18년째 기부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그동안의 누적 기부액만 9억 원이 넘는다. (주)선광 윤의용 이사는 “인천의 향토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나눔명문기업 가입을 계기로 체계적인 사회 공헌에 앞장서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소통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광주



기아자동차(주) 광주공장, 여름 나기 성금 전달

기아자동차(주) 광주공장 노사가 이웃들에게 시원한 여름을 선물하기 위해 광주 사랑의열매에 성금 3,000만 원을 전달했다. 성금은 월산지역아동센터, 푸른동산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 광주 지역 15개 사회복지시설에 200만 원씩 지원했으며, 각 시설에서 선풍기·양산·부채 등 여름용품을 구입해 형편이 어려운 가구에 전달했다. 기아자동차(주) 광주공장 관계자는 “노사가 함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아름다운동행, 성금 3,000만 원 기탁

아름다운동행(상임이사 일화 스님)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 지역 사회복지시설을 위해 성금 3,000만 원을 광주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성금은 광주 지역 복지시설에 지원해 코로나19 방역 물품과 생필품 등의 구입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일화 스님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을 겪는 광주 지역에 조계종단이 조금 온정의손길을 내밀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대전



대전주간보호분과 소속 센터 5개소, 착한가게 동참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대전주간보호분과 소속 센터 5개소가 지난 8월 5일 대전 사랑의열매 착한가게에 가입했다. 대전주간보호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산마을노인데이케어센터(센터장 홍정미)의 가입을 시작으로 해피엔젤재가복지센터(센터장 조원경), 예명주야간보호센터(센터장 서복희), 아름다운동행서유성노인복지센터(센터장 김수현), 한가족너싱홈(센터장 박찬웅) 네 곳이 함께 동참하며 기부를 이어나갔다.



(주)금성백조주택, 이웃 돕기 성금 2억 원 기부

지난 8월 10일 (주)금성백조주택이 대전 사랑의열매에 대전 지역 이웃을 위한 성금 2억 원을 기부했다. 지난 2월 코로나19 극복 성금 3,000만 원을 기부한 데 이어, 7월에는 선별진료소 위문품으로 5,000만 원 상당의 홍삼 제품을 후원한 바 있다. 또한 국가유공자 노후 주택 무료 보수 사업을 27년째 이어오고 있는 (주)금성백조주택은 장학금 지원 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기부 활동을 펼쳐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울산



울산사회복지단체에 차량 12대 전달

울산 사랑의열매가 지난 8월 14일 2020년 기획사업 사회복지단체 차량지원사업 차량 전달식을 개최했다. 차량지원사업은 관내 사회복지 단체 서비스 대상자의 편의성 증대와 이동권 보장뿐 아니라, 복지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차량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2002년부터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는 대한유화주식회사의 성금으로 총 2억 7,831만 원을 지원했으며, 울산 사회복지단체 12개소는 승합차 8대, 경차 4대를 구입했다.



대학생 멘토링 지원사업 발대식 개최

지난 8월 18일 롯데삼동복지재단과 지역아동센터가 함께하는 '일석삼조 아동·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대학생 멘토링' 지원사업 발대식을 개최했다.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생 멘토들은 1년 동안 주 2회씩 울주군 관내 지역아동센터를 찾아 초등학교 5·6학년 82명에게 4개 과목(국어, 영어, 수학, 과학) 학습 지도와 진로 상담 등을 제공한다. 일석삼조 아동·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대학생 멘토링 지원사업은 롯데삼동복지재단 후원금 3억 2,900여만 원으로 진행된다.

경기



故 조은결님 경기229호 아너 회원 가입

한 달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故 조은결 님이 경기 229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됐다. “평소 본인보다 이웃을 더 생각하고 배려하던 딸의 모습을 떠올리며 생전의 삶을 더 아름답고 뜻깊게 기억하고자 한다”며故 조은결 님의 부모님이 가입 소감을 대신했다. 이에 경기 사랑의열매는 고인의 명복과 함께 고귀한 나눔의 뜻을 아너 소사이어티에 담아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겠다고 인사를 전했다.



경수고속도로(주), 이웃사랑 성금 2,000만 원 기탁

경수고속도로(주)가 경기 사랑의열매에 성금 2,000만 원을 기탁했다. 성금은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복지 기관을 위한 맞춤형 사업비로 1,000만 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경수고속도로(주)는 2016년부터 매해 성금을 기탁하며 꾸준히 이웃사랑을 실천해오고 있다. 박종혁 대표이사는 “지역의 복지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을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



2020년 신규 기획 사업 수행 기관 일곱 곳 선정

경기북부 사랑의열매는 지난 7월 20일 신규 기획 사업 수행 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 수행비를 전달했다. 해당 사업은 경기북부 어려운 계층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교통 취약층의 이동권 강화,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돌봄 인프라 강화, 복지 전달 체계 역량 강화, 민간 협력형 지역 기반 복지사업을 주제로 한다. 공모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거쳐 수행 기관을 총 일곱 곳 선정하고, 내년 7월까지 사업을 진행한다.



(주)강북삼성자동차운전면허학원, 나눔명문기업 가입

지난 8월 11일 (주)강북삼성자동차운전면허학원(원장 최현조)이 의정부 1호 나눔명문기업으로 가입했다. 기부금은 의정부시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는 데 사용한다. 최현조 원장은 “사회 공헌은 선택할 수 있는 활동이 아닌, 기업이 반드시 추구해야 할 필수 경영 활동”이라며,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가입 소감을 밝혔다.

강원



원주 우정원, 착한가게 가입

원주 단계동의 참숯불구이 음식점 우정원(대표 김원복)이 지난 7월 31일 강원 사랑의열매를 통해 착한가게에 가입했다. 이번 가입으로 우정원은 강원도의 1,263번째 착한가게가 되었다. 우정원의 김원복 대표는 가입과 함께 “착한가게에 동참해 지역사회와 어려운 이웃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충북



박문희 충청북도의회장, 사랑의쌀나눔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박문희 의장이 지난 8월 6일 약 500만 원 상당의 백미 188포를 기탁했다. 기탁한 쌀은 신임 박문희 의장 취임 축하를 위해 도의회 사무처에 들어온 쌀로, 지원이 열악한 아동 및 장애인 그룹홈 등 소규모 시설과 한부모 가정에 전달했다. 박문희 의장은 “적은 양이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후원이 줄어들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을 소규모 시설과 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영동예코발전본부, 강릉시 전통시장 온실가스 감축 지원

한국남동발전 영동예코발전본부(본부장 박부윤)가 지난 8월 18일 전통시장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을 위한 상생 협력 협약식을 진행했다. 온실가스 감축 지원 사업에서 강릉시는 행정 지원, 강원 사랑의 열매는 사업 관리를 담당한다. 영동예코발전본부는 사업비 4,000만 원을 지원해 노후한 점포 170여 개의 조명등을 LED로 교체할 계획이다. 박부윤 본부장은 “에너지를 중심으로 상생과 환경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충북 기부명문가 가족, 중증 발달장애인 이동 차량 전달

지난 7월 30일 충북 기부명문가 2호인 SK용정충전소 백규현 대표 가족이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청주시지부에 7,000만 원 상당의 승합 차량(쏘라티)을 전달했다. 기부명문가는 가족 구성원 중 3명 이상이 아나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부여하는 자격으로, 충북에는 두 가정이 있다. 백규현 대표는 “지원한 차량으로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동해 삶의 만족도가 향상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충남



삼남제약(주), 충남2호 나눔명문기업 가입

지난 8월 14일 삼남제약(주)(회장 김호택)의 나눔명문기업 충남2호 가입식이 진행됐다. 2014년 충남11호 아너로 가입한 김호택 회장은 선친인故 김순기 회장의 탄신 100주년을 맞아 의미 있는 나눔을 실천하고자 나눔명문기업 가입을 결심하게 되었다. 김호택 회장은 “최근 금산군에 호우 피해로 지역의 많은 분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는데, 빠른 시일 내에 복구 작업이 이뤄져 조속히 일상생활로 돌아가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전했다.



포스트 코로나19 현안 해결을 위한 시군 간담회 개최

충남 사랑의열매는 지난 7월 22일 코로나19 이후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한 의견을 듣고자 충남 도내 15개 시군 사회복지 담당 주무 부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도내 복지 현장의 복지 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시군 담당자들과 협의를 통해 수행 기관을 선정할 후, 10월 초 시군별로 7,000만 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전북



호우 피해 사회복지시설에 1억 원 긴급 지원

전북 사랑의열매는 기록적인 폭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긴급 복구 비용 1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전북 내 사회복지시설의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지자체의 추천 및 지원의 시급성을 판단해 선정한 사회복지시설 19개소에 개·보수 비용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순창지역아동센터의 박진숙 센터장은 “무릎까지 차오르는 침수로 아동들이 센터에 오지 못하는 막막한 상황이었는 데, 지원금이 있어 그나마 복구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전했다.



쌍치팜, 전북 착한가게 2,500호점 가입

블루베리, 매실 등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가계인 쌍치팜(대표 조동욱)이 전북 지역 착한가게 2,500호가 됐다. 특히 이번 가입은 조동욱 대표가 2017년부터 조금씩 기부를 해오던 것이 매월 매출의 일 정액을 나누는 착한가게 가입으로 이어져 더욱 의미가 있다. 조동욱 대표는 “퇴직 후 귀향해 지역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실천한 나눔이 내 삶의 기쁨이 되어 오히려 감사하다”며 가입 소감을 밝혔다.

전남



집중호우 피해 긴급 지원금 5억 원 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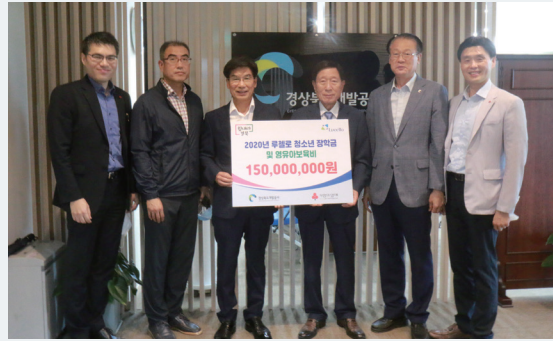
전남 사랑의열매가 폭우로 인한 산사태와 침수로 피해가 가장 심한 전라남도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화순군, 나주시,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8개 시군에 5억 원을 지원했다. 지원금은 전남 도민들이 마련한 성금으로 4억 6,500만 원은 수재민의 식사 문제 해결을 위한 '사랑의 밥차'와 취약 계층 및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구호품, 생계·의료비, 복구 사업비 등으로 사용했다. 3,500만 원은 2차 피해 지역에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여수 백병원 백창희 병원장,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

지난 7월 21일 여수 백병원 백창희 병원장의 가입으로 전남 99호 회원이자 여수시 15번째 아너가 탄생했다. 여수 지역은 기업인과 지역업자 중심으로 아너 가입이 활성화된 곳으로, 의료계 아너는 최초다. 백창희 병원장은 "2005년 개원 이후 다양한 방법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왔지만, 아너 가입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기부금은 여수시 복지사업비와 의료 취약 계층 청소년의 의료비 지원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경북



경상북도개발공사, 성금 1억 5,000만 원 전달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중록)는 지난 7월 21일 저소득 가구 청소년 장학금 1억 원과 영·유아 보육비 5,000만 원을 경북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청소년 장학금은 공사가 2015년부터 시행한 장학 사업으로, 올해는 상주시·칠곡군·영덕군·울릉군 4개 시군의 청소년 200명에게 50만 원씩 지원했다. 영·유아 보육비는 보육 인프라가 부족한 도내 시군 지역을 2017년부터 매년 순차 지원하는데, 올해는 포항·경주·경산·구미의 100가구에 50만 원씩 지원했다.



경주시 황오동·선도동, 연합모금 사업 협약 체결

지난 7월 29일 경주시 황오동·선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경북 사랑의열매와 풀뿌리 기부 문화 확산 및 지역의 사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함께 모아 행복고' 연합모금 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경주시 황오동·선도동은 주민센터 등에서 후원자를 개발하고, 모금한 성금으로 대상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제공한다. '함께 모아 행복고' 사업은 민관 협력 사업으로 현재까지 15개 시군과 협약을 체결했다.

경남



한국남동발전, 사회적 경제 기업 사업비 지원

지난 8월 11일 한국남동발전(KOEN)은 'KOEN 사회적 경제 기업 페이스메이커 사업'에 사용할 사업비 1억 원을 전달했다. 이번 사업은 정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경남 사랑의열매, 경남사회연대경제사회적협동조합과 협업했다. 사업에 선정된 7개 사회적 경제 기업에 설비·홍보 등 재정 지원은 물론, 운영과 관련한 전문 컨설팅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성금·성품 기탁

지난 7월 31일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는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고자 회원사들이 함께 모은 성금 1,100만 원과 백미 460kg을 경남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어려운 이웃 돕기 자선 대회 개최와 정기총회 축하 화환을 쌀로 받는 등 회원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마련했다. 이번 성금과 성품은 지체장애인들의 재활과 자립을 돕는 경상남도지체장애인협회를 비롯해 도내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 기관·단체 총 네 곳에 전달했다.

제주



김태엽 서귀포시장, 임기 중 월급 전액 기부

지난 7월 28일 김태엽 서귀포시장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임기 동안 받는 급여 전액을 매달 기탁할 것을 약속했다. 기탁금은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8개소 프로그램비 및 장애인 재활 시설 생산물 구입 지원 등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한다. 또 서귀포 지역 주거 취약 가구 임대료 및 냉방용품 지원, 부모의 심한 장애 등으로 적립금을 부담하는 게 어려운 디딤씨앗통장 아동 지원 등 필요한 곳에 지원할 예정이다.



사람튀트니스 노형점, 착한가게 3,000호 가입

지난 8월 8일 사람튀트니스 노형점(대표 김세호)의 가입으로 제주 착한가게가 3,000호를 돌파했다. 2008년 1호인 바위수산의 가입 후 약 12년 만에 3,000호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착한가게는 제주의 자체 캠페인이던 '착한나눔일터'가 좋은 평가를 받아 전국으로 확산된 캠페인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깊다. 제주 사랑의열매 김삼식 회장은 "제주도민들의 나눔 정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착한가게 확산과 나눔문화 저변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세종시, 화재 피해 가정을 위한 도움의 손길

지난 7월 11일 세종시 연서면에서 발생한 화재로 관내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남겨진 가족은 입고 있던 옷과 신발을 제외하곤 모든 걸 잃었다. 이에 세종시교육청 직원 일동은 긴급 생계비를 지원했으며, 세종시 교육공무원노동조합은 정서 안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세종실천교육 교사모임, 세종맘카페, 세종중앙신탁 및 개인 기부 등 각계각층에서 도움의 손길을 보냈다.



세종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의 따뜻한 마음

세종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 단원은 대부분이 나눔리더, 착한가게, 착한가정 등 기부 프로그램에 참여해 타의 모범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나눔봉사단 단원 중 정연희 부단장, 전해선·손영희 운영위원이 나눔리더에 가입했다. 이 외에도 나눔봉사단은 기부자 발굴을 통해 나눔문화 전파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오픈 톡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제보를 받아 도움이 필요한 곳에 발 빠르게 찾아가는 등 적극적으로 나눔에 동참하고 있다.

사랑의열매 다양한 기부 방법



문자 기부
#9004

한 통에 2,000원



ARS 기부
060-700-1212

한 통에 3,000원



온라인 기부
같이가치
with kakao



기념일 기부
좋은 날, 기쁜 마음을
함께 나눠요
문의 02-6262-3082



이벤트 기부
즐거운 행사와
사랑 나눔을 함께
즐거보세요



**상담 혹은 문의가
필요하다면**
080-890-1212



계좌 기부

예금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민 003137-04-000306
농협 1082-01-001966
신한 100-013-446845
외환 068-13-21097-3
우리 052-581567-13-101
하나 399-810005-31705



참 좋은 당신이 있어 세상이 1°C 따뜻해집니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1억 원 이상을 기부했거나 5년 이내 납부를 약정한 개인 고액 기부자의 모임입니다.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더 밝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참여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사회 지도자들입니다. 국내 최초 고액 기부자 모임이자 국내 최대 기부자 클럽으로,
한국형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나눔을 실천하고,
사랑의 가치를 창조해나가며 기부 문화 확산을 이끌고 있는 가슴 따뜻한 리더들입니다.

중앙
295호



이선재 선재국어연구소 대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국민에게 힘을 불어넣고,
하루하루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중앙
296호



유소연 LPGA 골프 선수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분의 희생과
노력으로 대회가 치러진 만큼 우승 상금이 꼭 필요한
곳에 뜻깊게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중앙
297호



이상우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나눔은 신뢰하고 관심을 쏟고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나눔을 통해 삶이 더 풍족하고 의미 있게 변하지요.
나눔의 선순환을 기대합니다.”

중앙
298호



유해진 세무법인 에이블 마포지점 대표 세무사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 내게 온 좋은
기회만큼 되돌려주는 것을 목표로 나눔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중앙
299호



김강석

“서로를 향해 적극적으로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회를 꿈꾸며!”

중앙
300호



공지철 배우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애쓰시는 의료진과
취약 계층을 위해 의미 있게 사용되었으면 합니다.”



서울
295호

김용민 (주)엑스오비스 대표
“나눔은 연쇄반응입니다.”



대구
159호

김현환 김현환법률사무소 변호사
“보내는 작은 정성이 꼭 필요한 곳에 잘 전달되어 더 행복한 대구가 되는 데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구
160호

배은숙 (주)세아섬유 대표
“제가 나누는 사랑이 제가 나고 자란 대구를 더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인천
142호

이선영 새희망병원 원장
“15년째 사랑의열매에 기부를 이어오던 중, 나눔이 체계적이고 쓰임새 있게 지원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했습니다. 앞으로 더 힘든 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천
143호

추성호 인성코퍼레이션(주) 대표이사
“인천엔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남을 도우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본받아 앞으로도 꾸준히 기부와 봉사 활동을 하겠습니다.”



광주
111호

김영주 대한건설협회 광주광역시회 회장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눔 실천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경기
229호

故 조은길
“평소 본인보다 이웃을 더 생각하고 배려한 딸의 모습을 떠올리며, 생전의 삶을 더욱 아름답고 뜻깊게 기억하고자 합니다. 아름답고 소중한 나눔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전남
99호

백창희 여수백병원 병원장
“개원 이후 현재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적 취약 계층을 위해 나눔 활동을 실천해오고 있지만, 전남 사랑의열매를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전북
67호

이후수 디앤스 대표
“고향의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너무 기쁘고,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과 봉사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경북
116호

배수동 성주 서부농협 조합장
“성주가 참외로 유명해지기까지 수많은 노력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던 이웃들이 코로나19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웃들에게 작으나마 힘이 되고자 참여했습니다.”



경북
119호

서명수 서광농장 대표
“40년 동안 품질 향상과 환경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노력해온 결과, 무항생제 인증 농가로 선정되었습니다. 도와주신 이웃에 대한 감사와 조그마한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의열매〉에 따뜻한 사연을 보내주세요

지난호 독자 의견



○ 코로나19로 답답함을 많이 느끼지만, 마음 놓고 여행하기란 아직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면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도시 '파주의 재발견' 소개 여행 정보가 유익했습니다. 파주는 전쟁의 아픔을 간직한 채 갈등과 화해의 상징이 되지만, 이곳을 평화의 도시 정도로만 생각하기엔 아쉬울 만큼 기사를 보면 볼수록 새로운 '천의 얼굴'을 지닌 매력적인 도시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많이 위축되고 있는데, 지역 경제도 살리면서 아름다운 여행을 할 수 있는 여행지를 앞으로 많이 소개해주면 좋겠습니다. - 김영민, 경남 창원시

○ 저는 특정 지역을 여행할 때 그 지역의 식재료를 최대한 많이 활용한 식당, 즉 푸드 마일리지가 낮은 곳을 주로 이용하려고 해요. '세상을 바꾸는 희망 풍경' 칼럼 속의 진주우리먹거리협동조합 '진주맛'의 사회 공헌 활동은 지역사회에 고스란히 환원하면서도 환경을 위한 선택일 뿐 아니라, 그 지역을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이라는 생각이드네요. - 강예숙, 인천시 연수구



○ 마이프렌차이즈 김준용 대표님의 선하게 웃으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직도 먹고살 걱정을 하는 때이지만, 김봉진 대표 기사를 보고 본인도 세상에 기여하고 싶다는 소망을 이룬 모습이 존경스럽습니다. 청각장애를 가진 부모님과 단칸방에서 살 정도로 어려웠지만, 목사님으로 활동하시며 늘 낮은 곳에서 봉사하신 아버지의 삶처럼 갓 태어난 둘째를 보면서, 이 아이가 살아갈 세상에 아바로서 뭔가 기여를 해야겠다는 그 마음을 저도 응원합니다. - 오영주, 부산시 부산진구



이렇게 참여하세요!

〈사랑의열매〉를 보시고 좋았던 기사나 의견을 보내주세요. 나눔에 대한 즐거운 추억이나 감동적 이야기, 〈사랑의열매〉에 전하고 싶은 말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더욱 알차고 따뜻한 〈사랑의열매〉를 만듭니다. 참여하신 분 중 세 분을 추천해 선물을 드립니다. 보내주시실 때에는 이름과 주소, 연락처도 잊지 마세요. **마감 일자** 매월 20일 **이메일** cckpr@chest.or.kr

독자 선물

독자 의견에 선정된 분에게는 문화상품권(2만 원)과 사랑의열매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블루투스 스피커



파우치(색상 랜덤)



안마봉

〈사랑의열매〉를 e-book으로도 만나보세요!



'사랑의열매' 홈페이지에서 〈사랑의열매〉 매거진을 볼 수 있습니다.

PC 홈페이지상단
공동모금회 → 홍보자료 →

출판 및 인쇄 → 회보

모바일 홈페이지 하단 회보

홈페이지 www.chest.or.kr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응원은
 지치고 힘든 이웃에 힘이 되고,


한 분 한 분의 사랑과 나눔은
 우리 사회를 지켜내는 희망이 됩니다.

모두에게 소중한 일상의 행복을 위해
 사랑의열매가 함께합니다.


코로나19
 특별모금/지원
 (2020. 06. 30. 기준)

총 지원액
1,129억 원
 (137억 원 지원 진행 중)

 방역 및
 위생관리
492억

 복지서비스
 공백지원
104억

 취약계층
 생계지원
269억

 의료진·자원
 봉사자 지원
127억

본 광고물은 코로나19 성금을 기부한
 가수 슈퍼주니어, 황송인 연영, 배우
 송윤아, 축구선수 이종국, 세프 이연복
 님의 재능기부로 제작되었습니다.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숨은 사랑의열매를 찾아주세요



그림 속에 사랑의열매가 숨어 있습니다.
몇 개가 있을까요? 사랑의열매를 찾아 인증샷을 보내주세요.

응모 방법 숨은 그림을 찾은 인증샷을 SNS에 올리고 해시태그를 달아주세요.

#사랑의열매 #모두의나눔 #숨은열매찾기

사랑의열매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를 팔로하시면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당첨자에게는 커피 기프트콘을 보내드립니다.